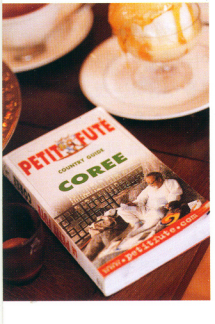
너무나 한국적인 프랑스 남자 벤자민 주아노 Benjamin Joinau

종로 뒷골목을 사랑하고, 인사동을 사랑하게 된 프랑스 남자가 있다. 서울이 좋아 아예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프랑스에서 한국여행 가이드북까지 출판한 벤자민 주아노. 한국인보다 더 깊은 한국 사랑을 가슴에 품은 프랑스인의 서울살이. 에디터 최정은, 김지영 | 사진 신병태, 이상훈



프랑스인들과 서울 속 멋진 곳을 공유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집필을 시작한 책. 서울 속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장소들을 소개 하기 위함이다. 프랑스 여행안내 도서 시리즈인 〈프티퓌테〉 의 한국편.

사랑에 빠진 남자 벤자민 주아노

한국에 첫발을 내딛던 10년 전만 해도 한국과 기약 없는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예상된 일이 아니었다. 벤자민 주아노. 프랑스에서 고전학과 문화인류학을 전공. 군복무 대신 해외파견 교사 지원.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도착. 이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한국은 그저 주어진 시간을 때우고 돌아서 버리면 그만인 낯선 외국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2년 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프랑스 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면서 그에게 조금씩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꾸밈없이 솔직한 학생들과 무표정한 얼굴 뒤에 살가운 속내를 드러내는 친절한 한국 사람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신기한 도시 서울, 맛있는 한국 음식들,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고궁까지 지금껏 한국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서울에 도착한 처음 몇 해 동안은 서울 관광책자에 나온 곳을 따라 맛집과 볼거리를 돌아다녔다. 젊은이들의 거리 홍대와 명동, 이대, 강남, 압구정동을 비롯해서 전통의 거리 인사동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들도 가보지 못한 황학동과 재래 시장까지 서울 속에서 그가 가보지 않은 곳은 없을 정도다. 서울 토박이보다 더 구석구석 서울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를 알아낸 벤자민은 이 좋은 서울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 '일' 을 계획했다.

그가 하룻밤 사이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흥미로운 서울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998년의 일이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좋은 서울의 이미지와 맛집과 볼거리를 프랑스인들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세계와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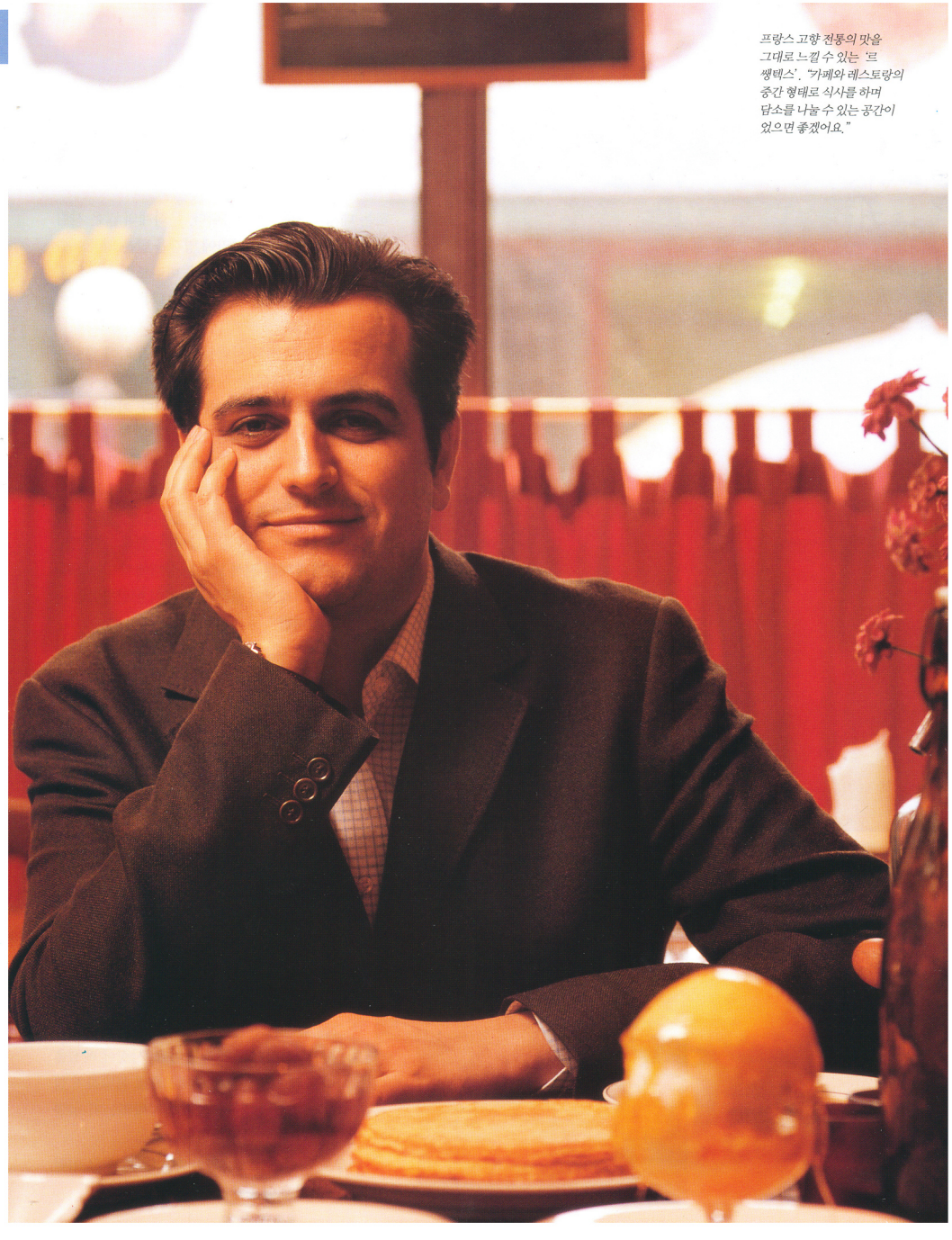
마음을 먹은 후 집필을 시작한 책이 프랑스 여행안내 도서 시리즈인 〈프티 퓌테(Petit Fute)〉의 한국편. 1999년 초판이 나온 후 2002년 월드컵 때 일부 수정을 거쳐 재판이 나왔다. 책을 한장 한장 넘기다 보면 그가 한국에 대해 느낀 점들과 발로 뛰어다니며 발굴해 낸 보석 같은 장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도시를 공들여 소개한 그의 노고가 느껴진다. 많은 프랑스인에게 여전히 미지의 나라로 비쳤을 한국에 대해 같은 프랑스인인 그가 공들여 쓴 한권의 책은 그 어떤 사람이 쓴 책보다 똑똑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영감을 주는 작지만 큰 나라 한국

"한국인들이 서양문화에 문화적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듯이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를 신선한 시선으로 바라봐요. 매년 프랑스로 휴가를 갔다 오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음을 느껴요. 한국영화가 누리는 선풍적인 인기와 관광지에 한국어 안내문이 있는 것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그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 소설들이 세계 시장에서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역 작업을 돕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직접 번역작업에 뛰어들기도 한다. 그가 요즘 번역 중인 작품은 박완서 씨의 〈그 가을 사흘 동안〉.

그가 하는 일의 범위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만



프랑스 고향 전통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르 쌩텍스'. "카페와 레스토랑의 중간 형태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남는 휴일과 주말이면 동묘에 들러 한낮의 여유로움을 만끽한다. 동묘 한 귀퉁이에서 바둑 두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에 발길을 멈추고 잠깐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들과 어우러져 친구가 된다. 살가운 속내를 드러내는 친절한 한국 사람들. 그가 서울에 머무는 이유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문화계의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영감을 받은 외국 예술인이 많이 있으며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면이 있음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서양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캐나다 친구와 함께 일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물론 호주, 칠레,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작가 10~15명을 초청해 올 가을에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은 신선합니다. 한국의 역사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마치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가장 프랑스적인 레스토랑 르 쌩텍스

이태원에 프랑스식 비스트로인 르 쌩텍스를 오픈한 것은 2000년. 서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외국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이곳은 서울에서 코스모폴리탄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에선 프랑스 식당이라 하면 화려한 곳만 생각하곤 하는데,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매일 들르는, 가장 일상적인 프랑스 식당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식재료도 치즈나 거위간 등 몇 가지만 빼고는 다 한국 시장에서 구입합니다."

이제는 '가장 프랑스적인 레스토랑' 이란 입소문이 퍼져 꽤 많은 한국인 단골을 확보하고 있는 벤자민. '왜 한국을 사랑하냐?' 는 상투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약간의 흔들림도 없이 여유롭게 대답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왜 사랑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유창한 우리말 속에 그 어떤 고백보다 뜨거운 마음이 전해 온다.

His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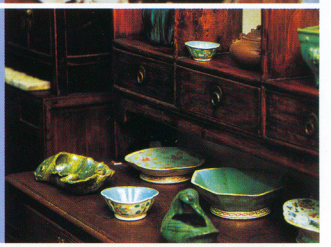
프랑스판 한국 가이드북을 낸 벤자민 주아노가 꼽은 베스트 숍

한강사

오래된 사진과 서적, 접시, 악기, 의상,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매하는 만물가게인 한강사는 그가 동묘에 오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다. 두 사람이 오가기도 비좁은 가게지만, 벤자민은 빠르게 휙 둘러볼 뿐인데도 빼곡히 쌓여있는 선반과 먼지 덮인 책들 사이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골라낼 수 있다. 좋아하는 스타일을 확실히 알고, 상품의 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에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 망설임은 없다. 가격을 물어는 보지만 흥정하지는 않는다. 이미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문의 02-2232-2325

고미술산

벤자민이 꼽는 황학동 쇼핑의 가장 큰 즐거움은 골목골목 숨어 있는 앤티크 숍 찾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그가 오랜 발품을 팔아 그가 마침내 찾아낸 가게는 고미술산. 다른 곳보다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이 가게를 즐겨찾는 이유다. 이미 그의 집에 이곳에서 구입한 앤티크 가구들이 멋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넉넉한 주인 아저씨의 친절함에 황학동에 올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다시 들르게 되는 단골 가구 숍.
문의 02-2234-9604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

홍익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당시 자주 가던 한정식집. 여느 다른 한정식 집과 다르게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모던한 분위기가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없이 받아들여져서 이곳을 찾는 손님의 30%가 외국인들이다. 너무 맵지 않은 한국 음식들을 맛보기에 좋은 장소. 5가지 이상의 코스 요리로 이루어진 4가지 메뉴가 주를 이룬다. 벤자민이 외국인 친구를 초대하거나 조용하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레스토랑이다.
문의 02-333-5616,
www.dinnertable.co.kr

이태원 고서점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하고 새 책을 사서 읽는 것보다도 한 번 누군가의 손을 거친 헌 책을 읽는 것이 의외로 매력적인 일이라는 것이 벤자민의 생각. 그래서 찾아낸 곳이 이태원 고서점이다. 유럽 고서점 못지 않은 꽤 많은 양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이곳은 한국어 교과서부터 여행지, 잡지, 소설, 역사책 까지 영어로 된 모든 장르의 책을 구입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한자리를 지켜온 주인의 고집이 느껴지는 서점으로 원하는 책을 고르기 쉽게 섹션별로 나눠 장르 구분이 잘 되어 있다. 문의 02-793-8249

르 쌩텍스 (Le Saint-Ex)

프랑스 레스토랑이 화려하고 비싸다는 편견을 깨버리기 위해 스스로 경영인이 되어 오픈한 프랑스식 비스트로 레스토랑 르 쌩텍스. 가장 좋아했던 〈어린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 의 이름을 따서 2000년 오픈했다. 쌩텍스의 기본 컨셉인 '르 비스트로' 는 카페와 레스토랑의 중간 형태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프랑스의 가정식 식당이다. "음식은 일상의 즐거움인데 비싸면 매일 못 먹잖아요." 여유로운 주인 덕에 여느 다른 레스토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고급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문의 02-795-2465